

총무원장 스님과 종무원들 무더운 여름날 ‘나눔 결사’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서 자원봉사 ‘뜻 깊은 하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총무기관 종무원들이 무더운 여름날 나눔결사를 실천하며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총무원장 스님과 종무원들은 지난 22일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에 거주하는 200여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쌀과 수박을 전달했다. 아울러 가옥 붕괴의 위험을 안은 가정의 지붕을 보수해주며 자비행을 펼쳤다.

이날 자원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기 위한 자성과 선행을 위한 5대 결사 중, 나눔결사를 행동에 옮긴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불자들은 재보시와 함께 주민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생계의 시름을 덜어줬다.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곳이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전형적인 철거민촌락이 눈에 밟혔다. 1200여 저소득 가정이 생활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주택재개발지구로 확정돼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독거노인이 대부분이다. 22일 오전 10시경 자원봉사 장소인 중계마을복지회관에

모착한 총무원장 스님과 종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점심공양부터 대접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자원봉사자가 되어 팔을 걷어붙였다. 테이블마다 일일이 돌며 식사를 직접 배식하

200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방문해

쌀·수박 전달...가옥보수

연우치과, 무료 치과진료

인근사찰 학도암도 동참

고 ‘많이 드시라,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전하며 출신수범했다. 점심공양을 마친 뒤 종무원들은 가가호호 방문해 쌀과 수박을 전달하면서 주민들을 위로했다.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해충스님, 재무부장 도문스님, 문화부장 진명스님, 호법부장 상운스님 등 중앙총무기

관에서 일하는 스님 50여명도 직접 쌀과 수박을 나르며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연우치과도 함께 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아 무료 진료를 실시하며 나눔결사를 실천했다. 인근 사찰인 학도암(주지 법보스님) 역시 중앙총무기관 봉사자들에게 점심공양을 제공하며 온정을 보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도 찾아와 일손을 거들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된 지원물품은 쌀 20kg 200포와 수박 200통, 특히 이번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종무원들의 자발적 기금 모금으로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종단은 지난해 11월에도 총무원장 스님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을 방문, 쌀 350포와 연탄 2만7000장을 보시한 바 있다. 실무를 주관한 자성과선행 결사 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는 “나눔결사 실천활동에 이어 앞으로도 이웃에 대한 나눔실천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tuel@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및 종무원들은 지난 22일 서울 중계동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백사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00여 가구에 자비의 쌀과 수박을 직접 집까지 전달하며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 이날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기 위한 자성과선행을 위한 5대결사 중 나눔결사를 행동에 옮긴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전통문화는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정부 문화인식 질타

“백범 선생이 갈망했던 문화강국의 꿈과 인류가 원하는 문화적 감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듯하다. 전통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주무기관이 전통문화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가지지 않는다. 더 이상 전통문화를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

“생동하는 전통
있는 생활이
문화강국 지름길”

는 새 도로명 표기의 문제점과 연동축제의 무형문화재 지정 오류와 관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해당 정부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일 조계사 대웅전에 열린 신임 청와대불자회장 취임법회에서 자승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내용을 인용해 정부부처의 낮은 문화인식을 지적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백범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뿐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단군의 이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며 청와대불자들에게 “생동하는 전통과 이를 잇는 생활로, 소중한 역사교육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문화강국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발언은 문화재정이 최근 연동축제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낮은 문화인식과 새로운 도로명에 불교 관련 지명을 삭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와대불자들이 이러한 대중의 인식을 빠르게 인식해 국가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지면안내

결사추진본부 구성 완료 3면

새주소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4면

스님들종단운영 '학계 불교종흥 대토론회' 현장 7면

'누구나 나를 죽인다' 국민MC 송해 11면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개관 18면



시행취지 ‘공감’ 재정문제는 ‘속제’

승려복지법시행령 제정 토론회...의견수렴

오는 10월 종단차원의 승려노후복지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의견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영담스님)는 지난 21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전국 교구본사 총무실장을 대상으로 한 ‘승려복지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종단의 승려노후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리인 동시에 각 교구본사에서 승려노후복지사업의 실무를 맡을 총무실장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용규 총무원 총무부 총무차장이 ‘승려복지 시행에 대

해’, 박종화 총무부 사찰교무팀장이 ‘승려복지법시행령 설명’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 뒤 각 교구본사 총무실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총무실장들은 승려노후복지제도의 시행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 교구본사가 부담해야 할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한 말사 주지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구본사에서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보험 부담액 가운데 최대지원액을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안을 총무부에 전달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알림

QR코드로 만나는 불교신문 뉴스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한 불교신문은 주요 뉴스를 QR코드로 제공합니다. 불교신문 인기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 '저, 내 처주의 선택'
소설가 성석제의 불교인연 이야기



- '시대와 흐름에 떠나는 것이 보수'
한국불교 지성인의 진단 III



- '대한민국 4번타자...신도등록도 만국통련'
조계종 신도등록 홍보대사 이대호 선수

박범훈 수석, 청불회장 취임

“소외이웃 찾아 위로
교단외호 역할 담당”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임 홍상표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로패를 수여하고, 신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의 제14대 청불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이에 앞서 박범훈 회장(사진)은 취임사에서 “예술가로서 교육자로서 직업에 충실히 살아오면서 부처님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걸으려 노력했다. 특히 음악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공양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 수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부처님을 위하여 기원정사를 세웠던 급고독장

자처럼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거룩한 스님들이 수행 정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외호대중의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등 주요 종단 지도자와 박범훈 회장, 김백진 청와대가톨릭회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직수 기자 jsahn@bulgyo.com

모두가 승자가 되는 특별한 올림픽, 스페셜올림픽

누군가는 기록을 위해 뛰고 누군가는 명예를 위해 뛰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함께하기 위해 뛰니다

지적발달장애인을 향한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서

끝없이 도전하는 용기와 뛰어난 인내심으로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 선수들...

당신을 모두가 이 올림픽의 자랑스러운 승자입니다

스페셜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가 함께 합니다

